

『北學議』와 『雪岫外史』의 비교 연구*

任明杰**

- | | |
|------------------------|---------------------------|
| I. 서론 | III. 『북학의』와 『설수외사』의 북학 서술 |
| II. 박제가와 이희경의 연행체험과 기록 | IV. 결론 |

• 국문초록

본고는 연암 그룹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북학과 중에서도 중국을 가장 많이 다녀온 지우로 楚亭 朴齊家(1750~1805)와 綸菴 李喜經(1745~1805 이후)의 연행체험을 통해 확인된 북학의 주장과 이용후생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北學議』와 『雪岫外史』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였다. 두 사람 모두 서얼 출신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조선 후기 실학과 중의 이용후생학파의 중요한 구성원이란 점에서 이 두 책은 북학의 사상과 주장에서 많은 공통점을 드러낸다. 그러면서도 초정의 『북학의』와 윤암의 『설수외사』는 또한 각자의 특색을 분명하게 띠고 있다. 초정의 경우는 전체 사회의 제반 문제점에 관심을 두고 경제제민의 내용이 포괄하는 士農工商 전체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였는바 농업은 물론이고 공·상업, 유통업, 해외 통상, 사회제도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암의 경우는 士農工商 중에서 ‘農’에 유독 관심을 두고 농업에 직접 관련된 분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수외사』는 『북학의』보다 후에 이루어진 저서이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면모를 보이는데 이는 19세기 벽두 정조의 사망과 더불어 직면한 북학파의 위험한 입지 및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윤암의 『설수외사』는 북학을 주장한 연암그룹의 마지막 저서

* 本文系國家社科基金一般項目“清代朝鮮北學派“燕行錄”與對清認識研究(批准號: 17BZW111)”的階段性成果.

**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어학과 부교수

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李喜經, 朴齊家, 北學議, 雪岫外史, 燕行錄, 北學派

I. 서론

18세기 조선조의 박지원(1737~1805)을 중심으로 한 연암 그룹은 이용후생학과 내지 북학파로 알려져 있다. 기존 지식인들이 春秋大義를 내세워 排淸 의식과 북벌론을 제기하고, 소중화라는 관념적인 상대적 문화 우월주의에 빠져있을 때, 이에 반기를 들고 청나라의 선진문물을 널리 수용하여 낙후한 조선을 경장하여 富國濟民을 이루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연행과 직접 관련을 지닌다. 북학파 구성원 대부분이 연행사의 일원으로 중국을 다녀왔고, 중국에서 직접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소통하면서 북학의 확신과 이론적 깊이를 더하였다. 이처럼 이들의 주장과 북학의 견해는 연행체험을 통해 정립된 것이고,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항들은 그들이 남긴 연행기록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간 북학파의 연구는 문학·사상·역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는데, 주로 대상은 그들이 남긴 연행기록에 초점을 맞추었다. 북학파의 문학연구만 보더라도 이미 방대한 성과를 축적하였다. 주목할 사실은 최근 중국학계에서도 ‘타자의 시선’이라는 맥락에서 북학파 연행록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북학파 연행록의 기존 연구는 북학파 내지 ‘연암 그룹’이라는 통념 아래, 이들 구성원의 연행록을 연구해 왔다. 북학파의 주장과 사상이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집단지성의 산물이란 중요한 사실은 북학파 전체의 통합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¹⁾ 하지만 북학파 문인 개개인의 학문적 성향을 재고한 개별 연행기록의 세밀한 연구의 필요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북학파 구성원들은 이덕무나 박지원처럼 한 번의 연행체험만을 한 예도 있지만, 柳得恭(2차)이나 朴齊家(4차), 李喜經(5차)처럼 여러 차례 다녀온 사례도 있고, 동시에 연행 길에 올라 연행 일정을 함께 한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같은 북학파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관심사와 취향에 따라 중국에서 주목한 관심 영역과 대상이 다를 수 있다.²⁾ 게다가 동일 주체라 하더라도 두 번 이상의 연행 체험을 한다면 청을 바라보는 전후의 인식 차이도 존재한다.³⁾ 따라서

1) 임명걸, 「18세기 북학파 연행록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2013.

2) 임명걸, 「이덕무와 박제가의 연행록에 나타난 중국 인식 비교연구」, 『새 국어교육』 112, 한국국어교육학회, 2017, 377~370면.

서로 다른 연행 주체에 따른 체험의 차이와 동일 주체의 여러 차례에 거친 연행에 따른 인식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검토와 엄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북학과 연행록을 전반적으로 조명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룰 楚亭 朴齊家(1750~1805)와 綸菴 李喜經(1745~1805 이후)은 북학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평생 지우이기도 하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이 북학과 구성원 중, 연행횟수가 가장 많고 기록된 내용과 주장도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사실이다. 북학파라는 명칭 또한 박제가의 『북학의』에서 ‘북학’을 따온 것이고, 『설수외사』를 완역하면서 “북학 또 하나의 보고서”라는 제목을 붙인 사실⁴⁾ 등을 볼 때, 『북학의』와 『설수외사』의 내용은 ‘북학’의 관점에서 보면 책의 題名만 다를 뿐, 주장의 내용은 상호 비슷한 점이 많은 데다 일관되게 북학을 주장한 점에서 동일하다.

『북학의』는 기왕에도 많은 연구자가 관심을 가졌는데, 대표적인 연구는 안대회를 들 수 있다. 그는 국내외의 20여 종의 이본들을 자세히 검토하여 『완역 정본 북학의』⁵⁾를 펴냈을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조정 박제가 연구』⁶⁾를 저술하여, 박제가와 『북학의』의 전모를 통합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 『북학의』와 조정의 연구에 비해 이희경의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1986년 이우성 교수⁷⁾가 동양문고에 있는 이희경의 『설수외사』를 소개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오수경⁸⁾을 비롯하여 진재교,⁹⁾ 조성산,¹⁰⁾ 김영진,¹¹⁾ 손형태¹²⁾ 등의 연구가 있었다.

- 3) 임명걸, 「『燕臺再遊錄』에 나타난 柳得恭의 中國 認識 研究-『熱河紀行詩註』와의 비교를 통하여」, 『새 국어교육』 104, 한국국어교육학회, 2015, 541~563면.
- 4) 이희경 저, 진재교 외 역, 『북학 또 하나의 보고서, 설수외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1.
- 5) 박제가 저, 안대회 역, 『북학의(완역 정본)』, 돌베개, 2013.
- 6) 안대회 외, 『조정 박제가 연구』, 사람의 무늬, 2013.
- 7) 이우성, 『서벽외사해외수일본총서』, 아세아문화사, 1986.
- 8) 오수경, 『18세기 서울 문인지식층의 성향-연암 그룹에 관한 연구의 일단』,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0; 「이용후생학파의 성립과 이희경의 『설수외사』」, 『대동한문학』 19, 대동한문학회, 2003, 435~471면; 『연암그룹연구』, 한빛, 2003; 「윤암 이희경의 실학사상과 학문-『연암 학파』 연구의 일단」, 『안동대학교 논문집』 15, 안동대학교, 1993, 1~17면.
- 9) 진재교, 「조선의 更張을 기획한 또 하나의 ‘북학의’-『설수외사』」,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회, 2010, 417~448면.
- 10) 조성산, 「18세기 후반 이희경·박제가의 북학사상 논리와 고학」, 『역사교육』 130, 역사교육연구회, 2017, 83~117면.
- 11) 김영진, 「일본 천리대학 천리도서관 소장 『윤암집』」, 『고전과 해석』 3, 고전한문학연구학회, 2007,

이상의 연구에서 이희경의 『설수외사』는 대체로 연암 그룹이라는 성격에 종속되어 연구되었다. 대부분 박제가의 『북학의』와 비교하거나 북학 사상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연구하였다. 기존의 연구 성과가 있지만, 『북학의』와 『설수외사』가 같고 다름이 있다는 사실은 간과한 측면이 있다. 『북학의』와 『설수외사』는 북학을 주장하는 큰 틀에서 공분모를 가지고 있으나, 박제가와 이희경의 연행 주체의 성향과 연행 시기의 차이는 물론, 북학을 서술하는 방식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이 점을 주목하여 두 저서를 상호 비교하여 같고 다름을 밝혀보고자 한다.

II. 박제가와 이희경의 연행체험과 기록

초정과 윤암의 생애는 이미 상세하게 밝힌 바 있어 부연하지 않는다. 다만 서술의 필요에 따라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¹²⁾ 楚亭 朴齊家(1750~1805 이후)는 밀양박 씨 朴珪의 외아들이지만 서자로 태어났다. 박제가의 초명은 齊雲이고 자는 再先·修其·次修이고, 호는 楚亭·葦杭道人·苕蓀堂·貞蕤·解語畫齋·穎翁이다. 1779년 1차 연행을 마치고 돌아와 이듬해 검서관이 되고 그 후에 이인찰방, 영평현감 등 관직을 역임한 바 있다. 綸菴 李喜經(1745~1805)은 양성 이씨 李燾(서자 신분)의 5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역시 서출이라는 명예를 써야 했다. 字는 聖緯, 號는 綸菴, 十三齋, 麴泉이고, 雪岫老人, 廣明居士 등으로 불렸다.

초정과 윤암 두 사람 모두 신분상 서출이어서 당시 조선 사회에서 출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1768년 무렵 연암 박지원이 백담 북쪽으로 이사 온 후 두 사람 모두 연암을 찾아가 평생 師友(交友)를 맺고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윤암은 평생 연암을 스승으로 모시고 임종까지 지킨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이때 초정은 유배 중). 이들은 초기에 문학창작을 통해 이루어진 문학동인 그룹으로서 백담시파라고도 한다. 초정과 윤암은 형암 이덕무, 영재 유득공 등과 더불어 절친한 사이이고 지적 교류와 학문적 교류를 같이한 동지라고 할 수 있다.

203~242면.

12) 손형태, 「『설수외사』를 통해본 윤암 이희경의 실학사상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13.

13) 박제가 저, 안대희 역, 앞의 2013 책; 오수경, 앞의 1990 논문 참조.

박제가는 1778년에 陳奏使의 연행 일원으로 正使 蔡濟恭을 수행하며 1차 연행을 하게 된다. 1778년의 연행은 북학파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연행이다. 이때 형암 이덕무가 書狀官 沈念祖의 수행원으로 초청과 함께 燕行에 오르게 되었다(같은 해에 영재 유득공도 중국 심양으로 가게 된다). 1778년 3월 17일, 서울에서 출발하여 윤 6월 14일에 의주로 돌아왔다. 이때 박제가는 연행체험을 바탕으로 『북학의』를 저술했고, 이덕무는 『入燕記』라는 연행록을 저술하였다. 그들은 연행을 통해 청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학문을 검증했다. 또한 홍대용에게 소개받은 陸飛, 潘庭筠 등 청나라 석학들과 직접 만나 필담을 통한 교류를 하였고, 북경의 서책시장인 유리창에 직접 들러서 새로 간행한 책들과 고서, 금서들을 열람하면서 조선에 소개되지 않은 책들의 書目을 베끼고, 한편으로는 희귀본을 구입하는 등 지식의 폭을 넓혔다.¹⁴⁾

박제가와 이덕무가 燕京에 체류한 약 1개월 동안 직접 교류한 인물은 약 20명에 달하고 있다.¹⁵⁾ 그중에서도 李鼎元(9회), 潘庭筠(5회), 唐樂宇(5회), 陶正祥(5회), 祝德麟(3회), 李驥元(3회) 등과는 密接한 交分을 가졌다. 초정은 이때 처음 중국의 문사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형성했지만, 이미 그들이 입연하기 전인 1777년에 柳得恭의 삼촌 柳彈素(柳琴)가 연행할 때, 시집 『韓客巾衍集』을 가져가 청나라 문인 雨村 李調元에게 서문을 받았고, 潘庭筠에 의해 이덕무·유득공·이서구와 함께 조선의 四家詩人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그 후로 1790년(4월, 9월)에는 한 해에 연속 두 번의 연행을 했고, 1801년(2월)에 마지막으로 4차 연행을 했다.

윤암은 1782년으로부터 1799년에 걸쳐 20년 동안 무려 5차례 연행을 하게 된다. 1차 연행은 1782년 10월에 정사 정존겸을 수행하여 1차 연행을 가게 되었다. 이번 연행에는 친구 南德新도 함께 가게 된다. 이때 윤암은 청나라 문사인 戴衢亨과 처음 만나 『綸菴集』의 서문을 받아온다. 2차 연행은 4년 뒤인 1786년에 정사 황인점을 수행하여 재차 연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 연행에서는 당시 청나라 문사 陳崇本과 1차 연행 때 만났던 대구형과 반가운 재회를 하고 그들과 중국의 纏足에 대해 논의한

14) 임명길, 앞의 2017 논문 참조.

15) 『입연기』에 기록된 인물들만 보더라도 唐樂宇, 陶正祥, 馬照, 潘庭筠, 富商 林氏, 查祖馥, 徐紹新, 蘇楞額, 嵩貴, 沈心醇, 沈瀛, 李驥元, 李鼎元, 李調元, 李憲喬, 蔡曾源, 祝德麟, 黃道 등 많은 사람이 있다. 또한 이덕무와 박제가가 항상 여정을 같이 한 사실을 감안하면 두 사람 모두 교류했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다. 현재 발굴된 이희경의 『운암집』 권2에 「入燕題詠」(15題19首)의 연행시가 들어 있다. 3차 연행은 그의 나이 46세가 되는 1790년에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바로 청나라 건륭황제의 팔순절을 맞이하여 열하에서 큰 잔치를 벌여 조선에서도 진하사은사로 연행사단을 파견하였다. 운암은 이번에도 정사 황인점을 수행하여 가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연암 그룹의 절친한 벗인 박제가, 유득공, 남덕신 등이 함께 떠나 연암 그룹이 총동원되다시피 했다. 박제는 9월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동지사검 사은사의 일원으로 재차 중국 연행을 가게 된다. 유득공은 이번 연행을 통해 『熱河紀行詩注』라는 연행록을 남겼고, 운암은 『운암집』 권3에 「熱河雜詠」(18題20首)를 남겼는데 바로 이때 남긴 시들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시에 많은 주를 달아 형식상 유득공의 『열하기행시주』와 비슷한 것이다. 또한, 중국의 벽돌 제도와 같은 관련 지식정보를 수집하여 『설수외사』에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이어서 1794년에 4차 연행은 정사 洪良浩를 수행하여 이루어지는데, 돌아오는 길에 중국의 논밭 灌溉 제도를 상세하게 관찰하고 물레방아의 제도를 자세히 전문하고 그 결과를 『설수외사』에 기록해 두었다.

마지막 연행은 이희경 자신의 나이 55세 때, 즉 1799년 7월에 부사 서형수(정사 조상진)를 따라 주자서 10여 종을 구해오라는 어명을 받고 가게 된다. 이때 이희경은 이 책을 구하러 여러 곳을 다녀보았지만 결국은 구하지 못하고 당대 청나라 대학자였던 紀昀(1724~1805), 翁方綱(1733~1818)을 만나 출판 경위의 정보를 얻으면서, 한편으로는 기윤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한다. 결국은 몇 년 뒤에 기윤의 도움으로 조선에서 이 책들을 받게 되었다. 이에 관한 내용도 『설수외사』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서술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표 1>)로 북학과 문인들의 연행을 함께 제시한다.

〈표 1〉 북학파의 연행 관련 사항

연행연도	작품	이름	신분	작품 성격
1765	燕記 乙丙燕行錄	홍대용	자제군관	기사체(잡지) 국문기행문
1778	入燕記	이덕무	수행원	日記體
	北學議	박제가	수행원	議論體
1780	熱河日記	박지원	자제군관	소설체, 기사체 (장르 혼합)

1782		이희경	수행원	
1786	入燕題詠	이희경(2회)	수행원	기사체(잡지) 시주
1790	열하기행시주	유득공	수행원	기사체(잡지) 시주
		박제가(2,3회)	수행원	
	入燕記(未發見) 熱河雜詠	이희경(3회)	수행원	기사체(잡지) 시주
1794		이희경(4회)	수행원	
1799		이희경(5회)	수행원	
1801	연대재유록	유득공	수행원	기사체(잡지)
		박제가(4회)	수행원	

위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조선조 북학과 인물들의 연행은 18세기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연행록을 비롯한 연행기록을 저서로 남겼다. 이덕무의 경우를 빼면 기타 북학과 지식인들 모두 기존의 전통적인 연행록 형식인 일기체를 탈피해 기사체(잡지) 내지는 일기체와 기사체의 혼합적 장르형식을 취했다. 특히 조정 박제가는 일기체를 완전히 탈피해 자신이 줄곧 관심을 기울였던 대상과 문제점을 주제별로 나누어 논증하는 의론적 형식을 취했다. 세밀한 관찰과 적합한 논거, 현실을 바탕으로 중국과 조선의 현황에 대한 대조적 글쓰기 전략으로 이루어져 마치 한 편의 정밀한 과학보고서를 읽는 느낌을 준다. 20대의 젊은 패기와 정열이 돋보이는 야심작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이희경은 5차례 연행을 통해 시 또는 산문(시주)으로 많은 연행기록을 남겼다. 그의 연행록인 『연행기』가 현재 미발굴 상태지만 『설수외사』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¹⁶⁾ 『설수외사』는 박제가가 1차 연행을 마치고 바로 그 연행기록을 쓴 것과는 달리 5차 연행을 마치고도 7년 뒤인 1805년에 즉, 윤암 본인의 나이 61세 때 남긴 글이다. 따라서 조정의 『북학의』를 혈기 넘치는 젊은이의 걸작이라면 윤암의 『설수외

16) 이희경 저, 진재교 외 역, 앞의 2011 책, “凡世間利用厚生之道, 覽之功爲最. 茲記燔法, 以資後用. 余於《入燕記》記之詳, 故今略之.”

사』는 환갑의 나이인 노인의 성숙과 노련함이 돋보이는 저서로 볼 수 있다.

『북학의』는 1778년 초정 박제가(29세)가 형암 이덕무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통진에서 3개월 만에 완성을 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내·외편과 진상본을 합해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지만, 진상본은 실은 1798년 말(49세)에 정조가 농서를 구하는 윤음을 반포했을 때 『북학의』에서 농업 부분을 보강하여 상소문과 함께 진상한 것이다.¹⁷⁾ 전체적인 입장은 제목에서 밝힌 바처럼 북학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곧 청의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방향은 중국의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 지금의 조선을 改良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자는 데에 두었다.

그래서 박제가의 『북학의』는 대부분 북학을 강조한 경세제민의 내용이다. 초정은 여행에서 직접 견문한 것 중에서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가리지 않고 『북학의』에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박제가의 『북학의』에서 농업과 공업, 광산업과 운수업에 이르는 사회 전 분야에서 청의 선진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조선에서 도외시한 수레와 배와 같은 제도와 관련한 문물은 물론, 자[尺]나 방앗공이와 같은 일상의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民富와 國富를 위한 것이면 도입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자기 생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사구시의 자세로 청의 문물제도를 꼼꼼하게 관찰하고 『북학의』에 남겼다.

북학과 지식인 중에서도 중국을 제일 많이 다녀온 이희경과 박제가는 다른 지식인들보다 중국의 사정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고, 발전된 청나라 현실을 인정하고 청을 적극적으로 배울 것을 주장한 그야말로 ‘기·승·전·북학’을 주장할 정도로 철저한 북학론자였다. 조선의 낙후한 현실을 改變하고 백성의 삶을 위해 거시적인 것에서부터 사소한 일상적 사안에 이르기까지 청을 모델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이를 『북학의』와 『설수외사』에 남겼다. 박제가의 『북학의』 서문과 ‘북학변’·‘존주론’, 이희경의 『설수외사』에 밝힌 “중국을 다섯 번 드나든 이유”에서 초정과 윤암의 중국 청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북학의』와 『설수외사』에 공동으로 보이는 중국의 벽돌과 각종 농기구에 대한 언급이 중국을 따라 배울 구체적인 내용인 것이다. 본고의 서론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희경의 『설수외사』에 관한 연구도 대부분 이점을 주목하여 박제가의 『북학의』와 비교하면서 공동성을

17)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박제가 저, 안대회 역, 앞의 2013 책, 484~486면 참조.

밝혀 북학과 그룹의 공동성향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희경과 박제가 는 모두 북학과 그룹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북학에 대한 관점과 주장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북학의』와 『설수외사』를 상세하게 검토해보면 다른 점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차이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Ⅲ. 『북학의』와 『설수외사』의 북학 서술

1. 형식의 차이

우선 제기할 것은 『북학의』와 『설수외사』의 형식과 서술방식의 차이다. 기본적으로 『북학의』는 박제가의 오랜 구상과 수정과 보완을 거쳐 국왕 정조와 정책 입안자에게 바친 것을 고려하면,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論辨적 글쓰기가 강하다. 이에 비해, 『설수외사』는 이희경이 청에서 견문한 선진기술과 청인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활용하는 기술과 도구를 실질적인 사용과 습득방법을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제시한 것이 다르다. 더욱이 『설수외사』는 이희경이 만년에 저술한 것이기는 하지만, 각 항목의 표제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정연한 체제를 구상하고 저술한 것도 아니어서 체계적 이지도 않다. 연행 체험과정에서 견문한 다양한 청의 신문물을 總畧한 것에 가깝다. 일단 도표(<표 2>)를 통해 형식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북학의』와 『설수외사』의 비교

서명 형식	『북학의』	『설수외사』
구성 방식	내·외편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 있음	제명만 있고 목록과 세부항목 없음
문제	논변적 문제	잡록 방식의 문제
도식의 활용	도식 활용의 언급 없음	도식을 통한 내용 이해 강조 ¹⁸⁾
내용상 특징	북학 관련 사항에 집중	북학 포함하여 견문한 것 모두 잡록
서술상 특징	사실과 비평의 논리적 서술	견문한 사실을 해설 위주로 서술

18) 이희경은 농기구의 개량과 새로운 개발을 위하여 도식을 활용하였고,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박제가의 『北學議』의 문체는 전반적으로 북학을 주장하기 위하여 각 항목의 서술에서 의론적 방식을 추구하였다. 外編에 論辨의 글이 많은 것도 그렇지만, 內編에서의 각 항목 서술 또한 견문체험의 서술과 함께 글쓰기 방향에서 논리적이며 변론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자기가 추구하는 북학의 구체적 대상을 국내에 알리기 위해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관찰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꼭 아는 사람을 찾아 확인했다는 서술은 서명웅의 서문에 잘 드러나 있다.¹⁹⁾ 이처럼 청에서 견문하고 체험한 북학의 여러 내용을 ‘北學’의 방향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한 내용을 논리정연하게 이론화해야 하는 형식적 제약을 거쳐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북학의』의 구체 내용을 보면 중국의 문물에 대한 설명은 한 편의 정밀한 과학보고서처럼 상세하고 북학에 관한 주장 또한 구체적인 사실을 낙후된 조선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수용의 이득과 그렇지 않을 경우의 폐단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여 논점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제가가 自序에서 “그들(청나라)의 풍속 가운데 본국(조선)에서 시행하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만한 것이 있으면 발견하는 대로 글로 기록하고, 그것을 시행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시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폐단까지 덧붙여서 주장을 펼쳤다.”²⁰⁾고 밝혔고, 또한 그 우수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조선의 낙후한 현실과 문물들을 비교하면서 청나라 선진기술과 문물 수용의 필요성을 한층 강도 높게 선전했다. 이에 서명웅(1716~1787)도 『북학의』의 서문에서 박제가를 “기이한 선비”라고 감탄하면서 “우리나라(조선)에서 통용하고 시행할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 세밀히 관찰하여 몰래 기록해 두었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 나타나면 다시 이

위하여 『農器圖』를 제작했지만, 현존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박제가의 『북학의』에 그 서문인 ‘農器圖序’만 남아 있다. 그리고 이희경은 『설수외사』에서 “대체로 기구는 글로 기록한다고 해서 그 모습을 다 형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도식을 그려서 살펴볼 수 있게 해야 한다.[大凡器用, 記文未盡形容, 宜有圖式以備考閱.]”라고 하여 농기구의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식과 함께 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이희경은 도식과 자신의 농기구 서술을 함께 읽기를 희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 박제가 저, 안대희 역, 앞의 2013 책, 서명웅, 「『북학의』序」, “凡遇可以通行於我國者, 熟視而竊識之, 或有未解, 復博訪以釋其疑, 歸而筆之於書.”

20) 박제가 저, 안대희 역, 앞의 2013 책, 박제가, 「『북학의』自序」, 27면, “今年夏, 有陳奏之使, 余與青莊李君(德懋)從焉, 得以縱觀乎燕薊之野, 周旋于吳蜀之士, 留連數月, 益聞其所不聞, 歎其古俗之猶存, 而前人之不余欺也, 輒隨其俗之可以行於本國, 便於日用者, 筆之於書, 並附其爲之利與不爲之弊.”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서 의혹을 해결”했기에 “한번 책을 펼쳐 읽으면 그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여 시행할 만하다”고 평가하고 박제가의 주도면밀하고 진지한 마음씀을 극찬했다.²¹⁾ 박제가 자신도 “정녕코 백성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오랑캐에게서 나온 법이라 할지라도 성인이 채택할 것이다. 더구나 옛 중국 땅에서 나온 법이라면 말해 무엇하랴? 지금의 청나라는 오랑캐는 오랑캐다. 오랑캐인 청나라는 중국을 차지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빼앗아 차지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빼앗은 주체가 오랑캐인 것만 알고 빼앗김을 당한 대상이 중국이라는 사실은 모른다.”²²⁾고 밝혔듯이 경세제민과 이용후생에 뜻을 둔 박제에게 있어 연행길에서 주 관심의 대상은 조선에 수용했을 때 이익이 될 만한 선진문물이었다.

구체적인 관심 분야도 농업, 공업, 상업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영역을 포함한다. 이를테면 수레·배·벽돌로부터 작게는 삿자리·자[尺]·방앗공이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관찰하여 그 우수성을 소개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진문물의 제작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했고, 조선에 수용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예상 효과까지 직접 설명했다. “조선의 백성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런 생각들은 기존의 청나라를 무조건 배척하면서 중국의 것이라면 모조리 배척하고 부정하는 기존의 인식과 확연히 다른 북학파의 선명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암 박지원도 이 점에서 자신의 『열하일기』와 같다고 『북학의』 서문에 직접 서술하고 있다.

시험 삼아 책(『북학의』)을 한번 펼쳐보니 내가 『열하일기』에 기록한 내용과 조금도 어긋나는 것이 없이 마치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듯했다. 이것이 바로 초정이 나에게 기쁜 마음으로 선뜻 보여준 이유이자 내가 혼연히 사흘 동안 읽고도 싫증을 내지 않은 이유이다. 아! 이것이 한갓 우리 두 사람이 눈으로 직접 본 것이라서 그러겠는가? 일찍이 비 내리는 지붕 아래, 눈 오는 처마 밑에서 연구한 내용과 술기운이 겨나하고 등불 심지가 가물거릴 때 맞장구를 치면서 토론한 내용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본 것이기 때문이다.²³⁾

21) 박제가 저, 안대희 역, 앞의 2013 책, 서명응, 「『북학의』序」, 37면, “朴齊家次修, 奇士也, 歲戊戌, 隨陳奏使入燕, 縱觀其城郭·室廬·車輿·器用, 歎曰, 此皇明之制度也, 皇明之制度, 又周禮之制度也, 凡遇可以通行於我國者, 熟視而竊識之, 或有未解, 復博訪以釋其疑, 歸而筆之於書, 爲北學議內外編, 其紀數詳密, 布法明暢, 且附以同志之論, 一按卷, 可推行, 噫, 何其用心, 勤且摯也, 次修勉之哉.”

22) 박제가 저, 안대희 역, 앞의 2013 책, 「尊周論」, 271면, “今清固胡矣, 胡知中國之可利, 故至於奪而有之, 我國以其奪之胡也, 而不知所奪之爲中國, 故自守而不足, 此其已然之明驗也.”

위 예문으로부터 박제가의 북학에 관한 내용과 주장은 박제가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박지원을 비롯한 북학과 구성원들 속에 공유된 인식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서로 만나 술을 나누며 교류할 때도 어떻게 하면 이용후생을 이루어 낙후된 조선의 현황을 일신하고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했다. 따라서 북학의 주장은 북학과 성원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루어 낸 결과물이며, 연행체험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런 의미에서 연암과 초정을 비롯한 북학파들의 인식은 기존의 공리공담의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인식과는 확연히 다른 실용주의에 기초한 객관적인 현실 인식이었다. 18세기 동아시아 현실과 조선의 현황을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본 실용주의에 기초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학의』에 나타난 수레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의 짐을 싣는 大車와 사람을 싣는 太平車, 그리고 농촌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獵輪車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조선의 쌍교와 초헌을 비교하여 그 장점과 폐단을 상세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있다.

수레를 이용하여 온갖 물건을 싣기 때문에 이보다 더 이로운 도구가 없다. 유독 우리나라만이 수레를 이용하지 않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 내가 그 까닭을 물으면 사람들은 곧잘 “산천이 험준하기 때문이다”라고 대꾸한다. 그런데 신라와 고려 이전에도 수레를 사용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옛날에는 劍閣, 九折, 太行, 羊腸의 험준한 지역을 통행하는 수레도 있었다. 지금은 중국으로 들어갈 때 요동 이전은 모두 산골짜기다. 여기에는 摩天嶺이란 데가 있는데 고개 높이가 20리다. 靑石嶺이란 곳도 있는데 험한 바위가 마구 솟구쳐 가파르기가 짝이 없다. 가파른 경사가 마치 南漢山城의 西門으로 들어가는 길과 같다. 말을 재촉하여 지나가려면 차바퀴가 바위를 쳐서 벼랑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를 낸다. 말이 전전공공 지나가기는 하나 넘어지지 않고 잘도 지나간다. 모든 것이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다.²⁴⁾

23) 박제가 저, 안대희 역, 앞의 2013 책, 박지원, 『『북학의』 서』, 33면, “試一開卷, 與余日錄, 無所齟齬, 如出一手, 此固所以示余, 而余之所欣然讀之, 三日而不厭者也, 噫, 此豈徒吾二人者, 得之於目擊而後然哉, 固嘗研究於雨屋雪簷之下, 抵掌於酒欄燈地之際.”

24) 박제가 저, 안대희 역, 앞의 2013 책, 48면, “萬物以載, 利莫大焉, 而我國獨不行何也, 輒曰, 山川險阻, 夫羅麗以前, 無不用車之理, 古稱劍閣·九折·太行·羊腸之車者有之, 今遼東以前, 皆峽矣, 有

이런 내용은 박제가 뿐만 아니라 북학파인 홍대용과 박지원도 똑같이 제기한 바 있다.²⁵⁾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초정이 말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라는 ‘우리’에는 동행한 이덕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덕무의 『입연기』에는 조선 백성의 이용과 후생에 관한 내용이 빈약한 것도 사실이다. 안대회는 이런 사실을 두고 박제가와 이희경은 경세학에 대한 관심과 의견이 비슷하지만, 이덕무와 유득공을 비롯한 동인들이 있는데 이들의 경세학에 대한 관심과 의견표명이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²⁶⁾

이희경의 『설수외사』의 경우를 보면 내용과 주장이 박제가의 것과 상당히 많은 면에서 공동성을 보여주지만, 문체는 雜錄 또는 筭記의 형식을 띤다. ‘先食後敎論’과 같은 문장은 항목 자체가 논변적인 글이지만, 글의 전체적 구성이나 서술방식에서는 박제가의 『북학의』에 비하면 약하다. 이처럼 강력한 주장을 펼치는 의론체 형식의 글쓰기에 반해 이희경의 문장은 세밀한 과학 설명문에 가까운 것이 그 특징이다. 그 전형적인 예는 박제가와 이희경의 벽돌[甃]과 그 제작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선명하게 나타난다.

박제가는 『북학의·내편』에서 수레·배·성곽에 이어 벽돌을 4번째로 다루고 있다. 그만큼 박제가의 생각에 벽돌의 중요성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벽돌가마[甃窯], 서양의 벽돌집[西洋甃屋] 그리고 벽돌 쌓는 데 필요한 회의 사용방법[三合灰]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문장을 자세히 보면 벽돌의 제작과 사용방법 못지않게 조선의 벽돌 수용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래 그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① 벽돌 가마는 종을 덮어 놓은 형상인데 나선형으로 만들었다. 굴뚝은 그 정수리에 내놓았다. 가마 안에 벽돌 하나씩 건너서 띄워서 쌓는데 마치 요사이 꿀떡을 켜켜이 쌓아 놓은 모양과 같다. 그다음 중앙부에 아궁이를 설치했다. 그렇게 하면 화력이 균일하게 퍼져서 멀고 가까운 거리에 따라 덜 구워지고 구워지는 차이가 없을 듯했다. 가마 하나에 8천 개의 벽돌을 생산했다. 여기에는

摩天嶺焉，高二十里，有靑石嶺焉，惡石橫刺而陡絕，有如南漢之西門焉，叱馭而過之，車轂擊石，聲若崩壓，馬兢兢而不躓，皆我人之目擊者。”

25) 임명걸, 앞의 2013 논문, 90~97면.

26) 안대회 외, 앞의 2013 책, 81면.

수레 두 대 분량의 수숫대가 소요되었다. 그 양은 대략 말 네댓 필에 실어 나르는 정도에 불과하다. 내가 가마를 설치한 곳 한 군데를 탐방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가마 주인이 나를 이끌어 가마 안으로 오게 해서 주고받은 문답의 내용이 이상과 같다.²⁷⁾

②현재 천하에서는 지면 밖으로 5~6길과 지면 아래로 5~6길은 모두 벽돌이다. 벽돌을 위로 높게 쌓아 만든 건축물로 누대, 성곽, 담이 있고, 깊이 파서 만든 건축물로 교량과 분묘, 운하와 제방 따위가 있어서 천하만국을 옷처럼 두르고 있다. 백성들이 수재나 화재의 피해, 도적의 침입, 썩거나 물에 젖는 것, 건물이 기울고 무너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벽돌의 힘이다. 벽돌의 효과가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천 리 강토 안에서만은 벽돌에 대해 연구하지 않고 팽개쳐 두고 있다. 실책이 너무 크다. 어떤 사람은 “벽돌이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서 우리나라에는 기와는 있지만, 벽돌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둥글게 만들면 기와가 되고 네모나게 만들면 벽돌이 된다. (진상본-창고 쌓기에 반복)

중국에서는 키 작은 담장조차도 성과 차이가 나지 않는데, 벽돌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길을 내고서 양편에 점포를 개설했는데 그 점포 뒷면이 모두 벽돌이다. 길 양 끝에 마을 공동의 문을 만들어 누각을 세워 놓았다. 그리고 그 문을 닫아서 마을을 지킨다. 이 문을 지나야 마을의 점포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도적도 경솔하게 공격해 들어올 수 없다. 옛날에 ‘골목의 전투’, ‘대로의 전투’라는 말이 나온 것이 이 때문이다.²⁸⁾

③후세의 제왕들이 궁궐을 축조하는 토목공사로 백성들의 힘을 고갈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저녁의 일조차도 걱정하지

27) 박제가 저, 안대희 역, 앞의 2013 책, 76~77면, “其密則如覆鍾而螺旋之, 煙門出其頂. 間一而積, 如今盛密餌. 然後當中而設火門, 想火候均齊, 無遠近生熟之分. 每一密得八千甃, 用蜀黍稻二車, 約不過今四五馬之背. 嘗歷一密, 密戶爲引入密中而問答之如此.”

28) 박제가 저, 안대희 역, 앞의 2013 책, 77면, “今天下出地五六丈, 入地五六丈, 皆甃也. 高則爲樓臺·城郭·垣牆, 深則爲橋梁·墳墓·溝渠·堤堰之屬, 衣被萬國, 使民無水火·盜賊·朽濕·傾圮之患者, 皆甃也, 其功如此, 而東方數千里之內, 獨廢而不講, 失策大矣. 或曰: “甃由於土, 故我國有瓦而無甃.” 是大不然, 圓則瓦, 方則甃. 中國之小小牆壁, 皆與城不異者, 以甃也. 故夾路而開店屋, 屋後皆甃也. 築里門於兩端而樓之, 閉其門而守之. 卽此過, 去村店, 賊猶不可卒攻. 古稱巷戰·莊戰者, 蓋以此也.”

않는다. 그래서 온갖 기예가 황폐해져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번잡하게 쌓여 있다. 백성들은 그런 탓에 일정한 의지가 없고, 나라는 그런 탓에 변치 않고 유지되는 법령이 없다. 그 원인은 모두 임시변통하는 대처에서 나온다. 그런데도 그런 대처가 백성을 곤궁하게 만들고 재정을 고갈시키는 해악을 끼쳐 나라를 나라 풀이 아닌 상태로 전락시켰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가령 벽돌로 담을 쌓아 수백 년 동안 담이 붕괴하지 않는다면 나라 안에 담을 쌓는 공사가 사라져 소득이 높아질 것이다. 나머지 일을 이 사례를 통해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은 지은 지 한 달 만에 담이 붕괴하고, 1년 만에 집이 부서지는 일이 일어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²⁹⁾

위 예문에서 보다시피 ①은 벽돌을 굽는 가마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을 그은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록은 박제가 직접 가마 주인을 만나 벽돌 가마 안까지 들어가 직접 확인한 정보이다. 그러기에 벽돌 가마의 구체적인 모양과 구조, 그리고 그 안에 굽기 위해 쌓은 벽돌의 쌓는 방법과 원리, 가마당 벽돌 생산량 및 소요되는 땀감수량까지 정확하게 파악한다. 그리고 자기의 이 기록이 가마 주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임을 밝히면서 객관적 사실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어지는 ②의 내용은 벽돌 제조과정의 설명과는 달리 벽돌의 광범한 용도와 조선에서만 사용하지 않는 폐단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을 하면서 “기와만 있지 벽돌은 없는” 현상을 당연시하려는 조선 사람들의 기존 인식을 꼬집는다. 또한, 중국의 경우 작은 담장마저도 벽돌로 쌓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고 튼튼하여 도둑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에 도계릴라전을 펼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지적은 벽돌의 광범한 용도를 서술하는 연장선에서 현실폐단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에서는 벽돌을 포함해서 나라의 ‘온갖 기예’가 날로 황폐해진 조선의 낙후한 사회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예문에서 말한 것처럼 백성은 의지할 데가 없고 나라는 지속하는 법령이 없이 날로 곤궁해져 이로 인한 각종 폐단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나라에서 이런 폐단을 조치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임시방편의 조치여서 오히려

29) 박제가 저, 안대희 역, 앞의 2013 책, 80면, “後世帝王, 更無以宮室役民力者矣. 我國之人, 曾無朝夕之慮, 百藝荒蕪, 日事紛紛, 民以之而無定志, 國以之而無恒法, 其原皆出於姑息, 殊不知姑息之害, 至於民窮財竭, 國不爲國而後已, 假如以甃築牆, 數百年不壞, 則國中更無築牆之事, 所獲多矣, 餘可類推, 今有月壤之牆, 歲壞之屋何也.”

해결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나라에서 장구한 계획과 대책이 없으므로 백성이 날로 가난해지고 나라 꼴도 말이 아니라는 참담한 사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신랄하게 비판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백성과 나라를 제대로 구하기 위해서는 발전된 청나라의 선진적인 각종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거기에 ‘각종 기예’ 중의 하나인 벽돌을 예로 내구성이 좋고 용도가 다양한 장점이 있기에 장기 계획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 청나라에서 선진문물을 직접 경험한 박제가는 이 선진문물을 조선에 수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펼친다. 그리하여 그의 글쓰기 방식은 선진문물에 대한 객관적인 소개뿐만 아니라 수용의 당위성을 논증하는 의론과 논변적 글쓰기 형식을 띠게 되는 것을 『북학의』의 가장 눈에 띄는 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희경의 경우는 어떨까? 벽돌에 관한 하나의 사례를 보도록 하자.

㉑벽돌[甃] - 천하의 물건은 써도 써도 끝이 없고 만들기가 매우 쉬워 네모 나게 만들면 네모가 되고 둥글게 만들면 둥글게 되며 상·하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만국이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서는 오직 벽돌만이 그러하다. 벽돌은 흙을 틀로 찍어 형체를 만들어 질로 규격에 맞고 가로로 놓든 세로로 놓든 세워 놓든 눕혀 놓든 어느 곳이나 딱 들어맞는다. 여기에 회를 칠하면 옷칠에 아교를 섞은 것처럼 잘 붙는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성곽을 쌓으면 대포로도 뚫을 수 없고, 여기에 오색 빛깔을 도금하면 궁전이 화려해진다. 네모나게 쌓아 올리면 문이 되고 아치형으로 쌓아 올리면 다리가 되고 연기가 빠지게 쌓으면 굴뚝이 되고, 가로로 고르게 펴서 쌓으면 대청이 되고, 둥글게 쌓으면 창이 되고, 바닥에 깔고 벽을 올리면 우물이 되고 못이 되며, 첩첩이 쌓으면 벽이 되고, 차곡차곡 층이 지게 쌓으면 섬돌이 되고, 무늬를 박아가며 쌓으면 담장이 되며, 겹쳐서 올리면 臺가 되고 제사단[壇]이 되고, 층층으로 올리면 탑이 된다. 세간의 도구를 예리하게 하여 민생을 윤택하게 하는 방도로는 벽돌의 공이 단연 최고이다. 이에 벽돌 굽는 법을 기록하여 뒷날 사용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 내가 《入燕記》에 자세히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³⁰⁾

30) 이희경 저, 진재교 외 역, 앞의 2011 책, 117면, “天下之物, 用之無盡, 造之至易: 方之爲矩, 圓之爲規. 上下之共之, 萬國同然者, 惟甃是爾. 蓋甃者, 範土成形, 自合繩墨, 橫縱豎臥, 無往不齊. 以灰相傳, 如膠投漆, 故用之城郭, 礮不入, 鍍之五彩, 宮殿華麗. 圭之爲門, 虹之爲橋, 煙之爲突, 鋪之爲

㉔벽돌을 찍어내는 법[榻法] - 진흙을 틀로 찍어내어 햇빛에 건조시킨 다음 가마에 넣는다. - 햇빛에 건조시킬 때에는 진흙 벽돌을 한 층은 가로로 다른 한 층은 세로로 쌓되, 1치 정도 서로 간격을 두어 구슬만한 구멍이 생기게 하여 바람과 햇빛이 통하도록 한다.³¹⁾

㉕가마를 만드는 법[窯法] - 벽돌을 둥글게 쌓아서 만드는데, 높이와 크기는 임의대로 한다. 대체로 가마 하나에 벽돌 1000개가 들어간다. - 연경의 崇文門 밖 30리 떨어진 곳에 官窯가 있는데, 내가 일찍이 한 번 구경한 적이 있었다. 큰 들판에 가마들이 벌집 모양으로 있었는데, 가마 하나의 규모가 1만 개의 벽돌을 구워낼 수 있었다. - 옆에 虹門 모양으로 아궁이를 만드는데, 아궁이 위에 서부터는 폭이 좁아져 꼭대기까지 이르게 한다. 위에서 보면 가마의 모양이 꼭 14일 밤의 달처럼 휘었는데, 이는 구울 때 불기운이 수직으로 올라가지 못할까 염려해서이다.³²⁾

㉖가마 안에 벽돌을 쌓는 법[窯內築法] - 가마의 下邊-아궁이 문이 있는 곳의 上邊이다.-을 반을 갈라서 높이 2척쯤 되는 곳에다 옆에 구멍을 내어 세 개의 연통을 만든다. 벽돌은 높은 곳부터 쌓기 시작하여 차차 밖으로 이문 위까지 쌓는데, 햇빛에 건조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슬만 한 구멍을 낸다. 꼭대기까지 쌓은 벽돌 옆에 6척 길이의 垛口를 내어 벽돌 쌓기에 편리하다.³³⁾

㉗굽는 방법[燔法] - 작은 나무든 풀이든 상관없다. 다만 불기운이 너무 강하면 벽돌이 타서 터질 수 있다. 꼬박 사흘 밤낮을 굽는데, 아궁이에서 보았을 때 마치 금과 은이 용광로 속에서 녹아내린 것처럼 벽돌이 온통 불에 빨갛게 달궈진 뒤에야 그만둔다.³⁴⁾

廳, 圓之爲牕, 甃之爲井爲池, 疊之爲壁, 級之爲墀, 雕之爲牆, 累之爲臺爲壇, 層之爲塔. 凡世間利用厚生之道, 甃之功爲最. 茲記燔法, 以資後用.-余於《入燕記》記之詳, 故今略之.”

- 31) 이희경 저, 진재교 외 역, 앞의 2011 책, 118면, “榻法-泥土榻于範, 晒而入于窑-晒時用泥甃築之. 一層橫, 一層縱, 令一寸相離, 玲瓏作孔, 使風日疎通.”
- 32) 이희경 저, 진재교 외 역, 앞의 2011 책, 118면, “窯法-環甃築成, 高大隨意爲之. 一窑容千甃者爲多-燕都崇文門外三十里有官窑, 余嘗一玩. 大野中窑若蜂窠, 一窑之圍, 可燔萬甃-旁作虹門爲竈, 自竈上乍縮至顛. 自上觀之, 圍形恰似十四夜月彎, 是爲燔時火氣恐不能直上也.”
- 33) 이희경 저, 진재교 외 역, 앞의 2011 책, 119면, “窯內築法-窑底下邊-窑門處爲上邊割半, 高二尺旁穴作三煙筒. 築甃, 自高處爲始, 次次出築, 以抵竈門上. 玲瓏作孔, 一如晒乾時築. 顛之旁, 有垛口, 其長六尺, 以便其築甃.”
- 34) 이희경 저, 진재교 외 역, 앞의 2011 책, 119면, “燔法-不拘柴草, 但火氣猛, 則焦坼, 燔之三日夜, 自竈窺之, 甃身通烘, 若金銀鎔化之狀, 然後乃止.”

㉠물을 붓는 방법[灌水法] - 가마 안에 온도가 한껏 올라갔을 때 일단 아궁이를 막는다. 그리고 꼭대기를 막되, 가운데가 움푹 꺼지게 만들어 물이 고일 수 있게 한다. 거기에 물을 상상 가득 채운다. 가마 전체가 다소 식을 때까지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과 불이 서로 작용을 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벽돌이 모두 너무 단단하게 되고 푸른빛이 돌지 않게 된다. - 벽돌의 질이 돌처럼 단단하면 사용할 수 없다. 푸른빛을 띠고 연하면서도 갈라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³⁵⁾

위의 긴 인용문은 이희경이 벽돌을 다루면서 ㉠벽돌의 특징과 용도, ㉡벽돌을 찍어내는 법[槌法], ㉢가마를 만드는 법[窯法], ㉣가마 안에 벽돌을 쌓는 법[窯內築法], ㉤굽는 방법[燔法], ㉥물을 붓는 방법[灌水法] 6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의 경우는 문장의 서두로서 벽돌에 관한 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벽돌의 특징과 다양한 용도를 소개하면서 “세간의 도구를 예리하게 하여 민생을 윤택하게 하는 방도로는 벽돌의 공이 단연 최고”라고 단정을 짓는다. 그만큼 이희경의 생각도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벽돌 제도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수용해 이용후생에 돕고자 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다. 하지만 아래 ㉡~㉥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박제가의 의론적 글쓰기 방식과는 달리 ‘벽돌제조과정’을 전문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학의』와 『설수외사』는 모두 중국을 여러 차례 경험했던 박제가와 이희경이 중국 청나라의 선진문물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조선에 수용하여 이용후생을 이루고자 하였다. 수용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상세하게 기록하여 적극적으로 국내에 소개하고자 한 점에서는 공통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박제가의 『북학의』는 형식상 북학의 정당성과 선진문물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론적 글쓰기가 주요한 특징이라면 이희경의 『설수외사』는 과학 설명문에 가까운 해설적 글쓰기가 그 특징이다.

35) 이희경 저, 진재교 외 역, 앞의 2011 책, 119~120면, “灌水法-正火, 始塞竈. 又塞顚, 乍陷令灣, 四起受水, 水常滿, 以窯身稍冷爲度, 是爲水火交濟之義. 否則甃皆頑堅, 無青銹之色. 甃質若堅如石, 則不可用, 青軟不解者佳.”

2. 내용의 차이

이희경과 박제가는 북학과 지식인 중에서 중국을 가장 많이 다녀왔기에 동시대 지식인 중에서 중국의 실정을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낙후된 조선의 상황을 바꿔 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 결과 기존의 지식인들과는 달리 객관적인 시각으로 중국을 관찰하고 실사구시의 태도로 중국의 발전된 제도와 문명을 유심히 관찰했으며 북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재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학의』는 박제가가 1차 연행을 마치고 난 후 3개월 만에 썼다고 하나 進上本은 1798년에 쓴 것으로 3차례 연행을 마친 뒤에 재정리한 저서로 볼 수 있다. 『설수외사』의 경우는 이희경이 ‘5차례 중국을 드나든 이유’를 직접 밝혔듯이, 5차례 연행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저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책에서는 중국을 긍정하고 청나라의 제도가 중국의 옛 제도라는 점을 역설하면서 북학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를 통해 조선의 이용후생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학을 통한 조선의 이용후생 실현’이란 기본 정신과 전략은 완전히 일치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설수외사』와 『북학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희경의 경우는 자신이 홍천에 귀농한 경력까지 있는지라 일찍 자신의 현실적 처지를 인식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희경은 농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고, 마침내 자연히 선진적인 농사법과 효율적인 농기구에도 깊이 인식할 수 있었다. 『설수외사』에 과학적인 농사법과 농기구에 대한 소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점을 잘 증명해 준다. 그리고 일찍 『농기도서』를 펴내고 동생 이희영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 넣게 한 것도 바로 이희경이 농업에 관심을 가졌다는 방증이다. 현재 『농기도서』는 발견되지 않아 구체적인 면모를 알 수 없지만, 『북학의』 진상본에 이희경의 『농기도서』 서문을 기록하고 있다. 거기에 “나는 운명이 본래 기구한 데다 재능과 학식이 부족하다. 위로 밝으신 임금을 보좌하여 한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부족하므로 앞으로는 밭도랑 사이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농사에 힘쓰고자 한다.”³⁶⁾고 서술하고 있다. 그만큼 자신의 현실적 처지에서 더 이상의 포부를 가지기 힘들다는 인식과 함께 이를

36) 『북학의』 진상본, 「農器圖序」, 207면, “余命本崎嶇, 又乏才識, 既不足以上佐明君, 經濟一世, 將欲老死畎畝.”

해소하기 위해 농사에 진력할 것임을 술회하고 있다.

선비가 출사가 막히면 은둔하여 修身에 힘쓰는 것이 보통이지만, 서자 출신인지라 이희경은 생업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처지였다. 때문에 歸農하며 살 계획을 하게 되었고, 먼저 귀농한 부친 이숙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으리라고 본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 이희경은 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5차례 연행을 통해 중국의 발전된 농사법과 선진적인 농기구를 연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희경은 농업과 관련한 이론의 제시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직접 실천하기도 하였다. 실제 이희경은 ‘區田法’을 이용해 같은 면적의 토지에서 기존 농사법으로 인해 얻은 수확량의 열 배나 되는 수확을 얻은 바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³⁷⁾ 요즘 말로 말하면 외국의 선진이론과 자신의 실천을 결합해 성공한 농업전문가인 셈이다. 그의 이런 농업에 대한 정보와 직접적인 경험은 절친한 친구인 박제가에게도 직접 영향을 주었고, 『북학의』 진상본에 「農器圖書序」가 기록되기도 했다. 북학과 성원들이 중국연행을 통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했음을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희경의 『설수외사』는 이처럼 이용후생을 위한 선진적인 농사법과 농기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잡록’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때문에 북학 관련 내용만이 아니라 자신이 연행에서 견문한 잡다한 내용을 적지 않게 싣고 있다. 예컨대 ‘섭생론’, ‘벼락맞은 정녀’, ‘휘파람의 대가들’, ‘돌에 얹힌 불가사의’ 등의 언급이 좋은 예이다. 이러한 견문한 잡다한 내용을 『설수외사』의 시작부터 서술하였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일반적인 잡록류로 오해를 할 소지는 충분하다.

만약 이 책의 목차 구성을 서문 뒤에 바로 ‘중국을 다섯 번 드나든 사연’부터 시작하였다면 북학의 성격을 선명하게 포착한 인상을 줄 수 있어, 『북학의』와 자매편임을 금방 인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년에 와서 굳이 『설수외사』의 구성을 이렇게 만든 것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하고 박제가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조정 역시 이희경과 마찬가지로 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북학의』에 다수의 농업관련 내용과 농기구를 상세하게 소개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조정은 연행을 가기 전에 청나라 관료 문인이고 漢詩四家의 시집 『韓客巾衍集』을 높이 평가한 李調元에게 편지를 보내 중국 청나라에 가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거기서

37) 이희경 저, 진재교 외 역, 앞의 2011 책, 「區田法」, 126면.

농업과 공업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의도를 밝혔다.

부디 하늘이 저의 충성을 헤아려서 말을 모는 보잘것없는 지위라도 중국 사절단에 따라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산천과 인물의 장대함, 궁실·수레·선박의 제도, 그리고 농업과 공업의 기술을 두루 마음껏 관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보고 싶은 것을 일일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³⁸⁾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정 박제가는 입연하기 전부터 중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耕農뿐만 아니라 ‘山川人物’, ‘宮室車船之制’, ‘百工技藝’가 모두 박제가의 관심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학의』는 농업 분야의 내용뿐만 아니라 工商業에 대한 많은 내용을 수록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설수외사』와 『북학의』 내용의 분명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희경의 경우, 土農工商 중에서 ‘農’에 집중적 관심을 보였다면, 박제가는 ‘土農工商’ 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청의 선진 제도와 문물을 모두 배워 조선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정책의 결정과 시행에 참여할 수 없는 작은 벼슬이지만, 나라와 백성을 위한 조정의 개혁 방향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더욱이 국내의 생산력 발전과 경제력 향상과 해외 통상론을 통한 부국정책의 제안은 시대를 뛰어넘는 방향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희경은 농업의 혁신을 통한 民富를 주장한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民富와 富國을 위한 전방위적 혁신을 제시한 북학의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설수외사』는 이희경이 만년에 와서 완성한 저서로, 그것의 완성 시기는 북학과 동인들과 충분한 지식·정보 교류를 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설수외사』는 『북학의』에 비해 북학과 관련하여 훨씬 풍부한 내용을 담거나 예리한 이론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두 북학 저술의 이런 차이는 저술 당시의 현실적 상황과 북학을 바라보는 인식의 깊이와 사유방식의 차이 등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간과할 문제가 아닐 것이다.

38) 박제가, 『정유각집』 4, 「與李羹堂」, “雖然齊家 庶幾天察其忠 得隨歲貢 備馬前一小卒 使得縱觀山川人物之壯觀 宮室車船至制 與夫耕農百工技藝之倫 所以願學而願見者 一一筆之於書面 質之於先生之前 然後雖歸死田間 不恨也.”

3. 북학 인식의 차이

『설수외사』와 『북학의』에 보이는 이희경과 박제가의 북학에 대한 인식과 주장은 많은 면에서 공통적인 면이 있지만, 형식과 내용 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희경은 『설수외사』의 서문에서 “평소 듣고 보아왔던 것과 마음속으로 깨달은 것과 직접 다녀보았던 것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어”³⁹⁾라고 밝혔다. ‘북학’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를 중심에 두고 이론적 차원의 담론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체득한 경험과 생각을 연행체험에서 견문한 것과 연결하여 서술하였다. 이희경이 ‘外史’라 이름한 것도 체계적 서술이 아니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제시한 題材는 작지만, 그 내용의 항목 관련 서술은 세밀하며 구체적이다. 실제 제시한 사례들은 이희경이 견문하고 체험한 청 문물과 관련한 일상사를 서술하였기 때문에 실생활과 직결되어 금방 알 수 있다.

반면에 박제가의 경우는 ‘북학’을 대주제로 잡고 그 하위에 세부항목을 제시하고 여기에 자신의 주장을 논변하기 위하여 辨과 論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 서술이다. 조정에 올리기 위하여 題名부터 ‘북학의’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쪽으로 체계를 잡았기 때문에 항목 서술의 성격을 분명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북학’이란 주제에 맞춰 내편과 외편을 분리하고, 각 편에 어울리는 항목을 채웠다. 글쓰기 방식도 대체로 논리적이며 論辨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글쓰기 방향에서 이론적이며 논리적인 제시를 하고 있어 독자에게 북학의 큰 틀의 공감을 끌어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상사에 접목하여 활용할 수 없는 내용도 있다. 外編의 論辨의 글들이 그러하다. 이 점에서 이희경과 차이를 보인다.

서명응이 『북학의』 서문에 “그는 우리나라에서 통용하고 시행할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 세밀하게 관찰하여 몰래 기록해 두었다.”⁴⁰⁾고 지적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 바로 이월시킬 수 있는 세밀한 안이라기보다 국가 정책이나 제도 속에 녹여낼 수 있는 거시적 차원의 안을 담고 있다.

39) 이희경 저, 진재교 외 역, 앞의 2011 책, 서문, 14면, “余今季六十一矣。流覽居諸，白首無名，回思少壯，摠皆成陳。前去餘齡，亦幾寒暑，其將艸亡木卒，一隨飄塵，此生此世，寧不寒心？爰采平日耳目之所聞見，心志之所解悟，足跡之所遍歷，彙爲一卷。”

40) 박제가 저, 안대희 역, 앞의 2013 책, 서명응, 「北學議序」, “凡遇可以通行於我國者，熟視而竊識之，或有未解，復博訪以釋其疑，歸而筆之於書。”

이희경과 박제가 모두 북학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중국을 가장 많이 다녀왔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청나라의 훌륭한 문물과 선진기술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태도로 긍정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만년에 글을 쓰게 되는 이희경의 경우 북학에 대한 태도가 오히려 박제가보다 느슨한 편이다.

그의 나이 61세(1805), 즉 晩年에 와서 이 책을 완성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북학의 주장을 보다 강렬하게 주장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도 오히려 박제가보다 북학의 내용과 주장이 다소 약한 원인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희경의 이렇게 된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를 방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이 있어 추측할 수 있다.

우선,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북학파의 입지가 정조의 비호를 받던 때와 완전히 달라진다. 어린 순조가 등장하면서부터 조선은 점차 국정이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세도정치를 비롯한 폐정과 더 나가 망국의 운명을 지니게 된 역사적 흐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정조의 죽음은 북학파에 있어서 절대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바로 북학파 중요 구성원들의 잇따른 사망으로 인해 북학파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바로 이듬해인 1801년에 이희경의 동생 이희영은 辛酉박해 사건으로 처형되었고, 절친한 동지인 박제가도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두만강 부근의 철성으로 유배를 가게 된다. 북학을 주장하고 조선의 경장을 주장하던 이들은 집권층의 입장에서 눈에는 든 가시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1803년 대왕대비가 유배 중인 박제가를 석방하라고 했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이들(판윤 정대용, 판의금부사 황승원)이 있어 즉시 석방되지 못하다가, 정순왕후 사후인 1805년에서야 유배지에서 풀려나게 된 것도 이를 설명해주고 있다.

박제가는 풀려나서 한 달 만에 사망하게 되고, 이희경이 스승으로 모시던 북학파의 수장인 연암도 역시 1805년 10월에 사망하고 말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이희경의 『설수외사』는 『북학의』의 저술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평생 포의로 아무런 뒷배도 없고 지인들마저 하나하나 별세한 후라 자칫하면 박제가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수외사』가 『북학의』보다 ‘북학’에 관한 내용이 풍부하지 못하고 주장이 다소 견결하지 못하다고 하나, 그 창작 시기를 고려해 볼 때 오히려 『북학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희경의 철저한 북학정신, 즉 조선의 현실을 직시하고 중국 청나라의 선진 과학기술과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용후생하자는 사상이

없었다면 결코 『설수외사』가 쓰이지 못했을 것이다.

이희경의 自序는 여타의 서문과 달리 한 편의 문장으로 논리 정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기축년 봄 정월 초하루에 花海樓에서 雪岫老人이 적었다.

나는 십수 년 이래로 여러 번 중국에 들어갔었는데, 山川, 謠俗, 宮闕, 城郭, 舟車, 第宅, 農桑, 畜牧, 工匠, 器用 등이 선왕이 남기신 제도 아님이 없었다. 그 중 백성들을 편리하게 하여 본받을 만한 것을 첫 편에 많이 기록하였지만 모두가 붓 가는 대로 어지러이 쓴 것이라 말에 차서가 없으니, 읽는 사람들은 양해하기 바란다. 설수노인이 책머리에 또 쓰노라.⁴¹⁾

위의 서문에서 이희경은 설수노인이 썼다는 말을 두 번이나 거듭하고 있다. 이는 그가 서문을 처음 완성한 다음 자기의 저서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다시 한 단락 추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위 서문의 내용은 보통의 필기류 저술처럼 “평소에 보고 들은 바를 적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독자에게 이 책이 평소 견문한 것에 있음을 애써 강조한 것처럼 보인다. 어찌 보면 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게 자기보호를 먼저 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자기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기가 어려운 열악한 상황임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언술이기도 하다. 이처럼 처음에는 자기 검열을 통해 비교적 완곡하게 서문을 지었으나, 설수노인을 두 번이나 등장시켜 적었노라 강조한 것은 자신이 주장하고자 했던 ‘북학’의 내용을 독자들이 알아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한 단락의 서술을 마친 후에 다시 추가해 자기의 저서가 북학에 主旨가 있음을 은근히 알린 것이다.

하지만 박제가의 경우, 짧은 시절 이 책을 조정에 올리기가까지 하였으니, 『북학의』에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전편에 관통시켜 서술하고 있다. 내용 또한 사농공상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1798년 ‘진상본’의 경우 정조가 농업을 권장하고 농서에 관한 책을 구하라는 윤음이 있어 올린 것이다. 하지만 그

41) 이희경 저, 진재교 외 역, 앞의 2011 책, 自序, “己丑春正月初吉, 雪岫老叟書于花海樓. 余自十數年來, 屢入中原, 凡山川·謠俗·宮闕·城郭·舟車·第宅·農桑·畜牧·工匠·器用, 無非先王之遺制也. 其中可效可法, 便利生民者, 首編多所記之, 而卒皆隨筆謾書, 語無遴次, 覽者恕之. 雪岫老叟又題.”

내용을 보면 농업뿐만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주장했던 사농공상에 관한 내용과 현실을 개혁하는 주장, 그리고 이를 위해 청의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북학’ 논리를 강하게 드러낸다. 무엇보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제가가 정조로부터 충분히 재능을 인정받았고, 검서관으로서 비록 말직이지만 정조를 가까이할 수 있어 자기 생각을 임금께 직접 표현할 수 있는 루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IV. 결론

박제가와 평생 포의로 지낸 이희경은 모두 서자로서 신분 제약으로 인해 자신들의 포부를 펼칠 수 없는 현실의 처지에 맞서 이를 학문적 성취로 넘어서고자 하였다. 이들은 시대적 제약과 신분적 굴레를 넘어 새로운 지식과 문물 섭취에 적극적이었고, 당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자 한 진보적 지식인이자 실학자였다. 특히 북학과 실학자 중에서도 연행체험을 가장 많이 하였고, 연행을 계기로 청나라 지식인들과心交하며 자신들의 학적 능력을 발산하기도 하고, 창수를 통해 문학적 정감을 교류하면서 청조의 학술 흐름과 문물의 깊이를 파고들어 이해할 정도로 당시 최고의 中國通이었다.

특히 이희경과 박제가는 이덕무나 유득공과 달리 조선의 이용후생에 더 관심을 가졌기에 연행체험을 바탕으로 수용 가능한 청나라 선진문물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선전했다. 이러한 결과가 바로 『북학의』와 『설수외사』다. 따라서 『북학의』와 『설수외사』는 『열하일기』와 더불어 북학을 대표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저서를 비교해 보면 북학을 지향한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두 저서에서 형식과 내용상 상당한 차이도 발견할 수 있다.

『북학의』의 경우, 박제가가 젊어서부터 경세제민의 이상을 품고 조선 사회 전반을 更張하고자 했던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국왕인 정조와 조정에 바친 글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자신이 연행을 통해 견문 체험한 사항을 자신이 구상한 북학의 체계를 구체적 항목으로 펼치고, 자신의 북학 이론을 개진하는바, 국가 제도와 실생활의 改變을 위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의 북학론은 士農工商의 분야는 물론 군사와 외교통상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풍부하고, 주장 또한 강렬한 인상을 줄 정도로

논리적이다.

하지만 『설수외사』의 경우는 이희경이 말년에 저술한 것으로 『북학의』와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일단 서술 동기부터 사뭇 다르다. 그는 평생 포의로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자 체념했던 개인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정조의 사망과 함께 정국은 북학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닌 데다, 동생마저 옥사에 걸려 죽은 뒤라 개인적으로 더욱 위축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만년의 이희경은 자기 검열까지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고심을 반영하여 연행에서의 체험을 다소 잡다하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북학을 주장하였다. 예리한 논리와 비평적 시선으로 북학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보다 견문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방식의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렇기는 하나 『설수외사』는 『북학의』를 이은 ‘북학’의 마지막 저술이다.

『북학의』와 『설수외사』는 모두 서술과 내용에서 같고 다름이 있지만, 18세기 말 조선 북학파의 ‘북학’의 구체적인 사상적 지향과 면모를 가장 잘 반영한 저서라는 점에서 18세기 조선의 학문과 사상에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된다. 향후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박제가 저, 안대회 역, 『북학의(완역 정본)』, 돌베개, 2013
- 안대회 외, 『조정 박제가 연구』, 사람의 무늬, 2013
- 이우성, 『서벽외사 해외수일본 총서』, 아세아문화사, 1986
- 이희경 저, 진재교 외 역, 『북학 또 하나의 보고서, 설수외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1
- 김성진, 「18, 9세기 한일양국의 명청소품문 수용에 대한 비교연구」, 『韓國文學論叢』 41, 한국 문학회, 2005
- 김영진, 「日本天理大學 天理圖書館所藏 『綸菴集』」, 『고전과 해석』 3, 고전한문학회연구학회, 2007
- 方炳善, 「楚亭朴齊家·綸菴李喜經의 도자 인식」, 『미술사학연구』 237·238, 한국미술사학회, 2003
- 손형태, 「『雪岫外史』를 통해 본 綸菴李喜經의 實學思想研究」,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13
- 吳壽京, 「18세기 서울 文人知識層의 性向-‘燕巖그룹’에 관한 研究의 一端」,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1990
- _____, 「綸菴 李喜經의 實學思想과 學問-‘燕岩學派’研究의 一端」, 『安東大學校 論文集』 15, 안 동대학교, 1993
- _____, 「利用厚生學派의 成立과 李喜經의 『雪岫外史』」, 『대동한문학』 19, 대동한문학회, 2003
- 임명걸, 「18세기 북학과 연행록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3
- _____, 「『燕臺再遊錄』에 나타난 柳得恭의 中國 認識 研究-『熱河紀行詩註』와의 비교를 통하 여」, 『새국어교육』 104, 한국국어교육학회, 2015
- _____, 「이덕무와 박제가의 연행록에 나타난 중국 인식 비교연구」, 『새 국어교육』 112, 한국 국어교육학회, 2017
- 조성산, 「18세기 후반 李喜經·朴齊家の 북학사상 논리와 古學」, 『역사교육』 130, 역사교육연 구회, 2014
- 진재교, 「조선의 경장을 기획한 또 하나의 ‘북학의’-『설수외사』」, 『한문학보』 23, 우리한문학 회, 2010

A Comparative Study Between *Puk'agŭi* and *Sŏlsuoesa*

Ren, Ming-jie

This thesis did comparison between Park Je-ga's *Puk'agŭi* and Lee, Hee-kyung's *Sŏlsuoesa*, which specifically reflected the propositions of Bukhak School and the idea of utility and welfare confirmed by their Yeonhaeng experience. Park Je-ga(1750~1805) and Lee, Hee-kyung were good friends. Both of them were the important members of Yeonam group, who visited China most frequently.

The two people went to China several times although they were both plebeians. Based on their Yeonhaeng experience, they expressed the thought of utility and welfare which was shared within Yeonam group by their writings, such as *Puk'agŭi* and *Sŏlsuoesa*.

As they were plebeians and important Silhak scholars with the consideration of utility and welfare, the two works revealed many common ideas and propositions of Bukhak. Meanwhile they clearly had their own characteristics on the contents. Through *Puk'agŭi*, we can know that Park Je-ga cared about all the social problems and insisted on the comprehensive reform of scholar, farmer, artisan and merchant stratum, which was related with agriculture, industry and commerce, distribution industry, overseas trade and social system in order to administrate the country and relieve the people's suffering. Compared with him, Lee, Hee-kyung focused on the 'farmer' and the field directly related to agriculture. *Sŏlsuoesa* was a later book than *Puk'agŭi* but rather conservative, which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death of Jeongjo of Chosŏn in the 19th century and the dangerous position and situation of Bukhak School. For this reason, Lee, Hee-kyung's *Sŏlsuoesa* can be considered as the last work that advocated Bukhak of Bukhak School.

In the future, the study on Yeonhaengroks of Bukhak scholars needs to pay attention on the differences of their works as well as the common points, so as to understand Bukhak School with a broader and more objective approach.

Key Words : Lee, Hee-kyung, Park Je-ga, *Puk'agŭi*, Yeonhaengroks, Bukhak School

